

천성산 해맞이 공원 조성 막아야

내원사, 현장방문 기자 브리핑

양산 내원사(주지 진성)가 천성산 해맞이 공원 조성 반대에 나섰다. 양산 내원사는 천성산 약 900,000㎡ 중 559,420㎡의 권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찰로 1974년부터 군부대에 내원사의 토지 일부인 천성산 정상 을 미사일기지 및 군사용 부지로 무 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를 무료로 대여해 주 는 대신, 사용 후 폐기물 및 잔재물 을 깨끗이 하고 생태계를 잘 보전하 겠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약속은 2003년 레이더기지 철수 및 2006 년 군사보호구역 해제 후에도 잘 지 지켜지지 않았다. 천성산 습지는 육화 현상이 일어나 생태계가 훼손됐고 군의 잔재물은 방치됐다.

이에 내원사는 6월 23일 천성산 훼손 현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또한, 군부대가 떠나자 양산시가 이번에는 천성산 정상 일대에 해맞 이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해 마다 새해가 되면 해맞이 행사가 대 규모로 열리는 천성산 정상은 수많 은 인파들이 승용차와 함께 인산인 해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이미 관광 객을 위한 도로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내원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바로 옆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 는 터라 해맞이공원을 조성할 경우 불가피하게 내원사 소유의 땅도 개 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원사측은 이의를 제기했 고 양산시는 천성산 정상부 산림복 원을 위해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준비중이며 해맞이

생태 보전 조건 어겨 정상에 공원 조성 계획

공원 시설이 내원사 소유의 땅에 설 치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산시는 천성산의 생태 계를 위해 군부대의 폐시설물 해체 및 철거작업으로 596톤을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해맞이공원 조성계획은 철화하지 않았다. 이는 내원사가 천성산 생태계 보전을 위 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내원사 주지 진성 스님은 "천성산 은 원효스님의 맥이 이어져 오는 불 교의 성지이다. 양산시와 마찰하지



양산 내원사가 천성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간담회 에서는 산감 지을 스님이 천성산 훼손 현장 브리핑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않고 천성산을 잘 보전할 수 있는 방 법을 찾는 것이 내원사의 뜻이다. 운 문사 주지 시절 운문산이 20년동안 휴식년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대중 의 요청으로 개방됐었던 사례가 있 었다. 그때 난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 해 운문산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 정한 것은 많은 이들의 관심 덕분에 이루어진 성과였다"며 천성산을 보 호하기 위한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산감이자 천성산 지킴이인 지을 스님은 "양산시는 생태계 복구사업 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순 환도로와 인로도 닦여져 있는 상태

다. 해맞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 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이 찾 아오게 된다. 생태계 그대로 보전한 산을 앞으로 더욱 더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천 농학박사(산과 자연의 친 구 우이령 사람들 회장은 "정상일 대에 이러한 습지가 있다는 것만으 로도 생태계적 보전 가치가 아주 높 은 곳이다"며 천성산 정상에 생태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기자 간담회에는 산감 지을 스님 을 선두로 천성산 훼손 현장 방문 및 브리핑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익산 정각사, 33선지식 초청법회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6월 27일 '33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 했다.

2월부터 시작된 4회 째를 맞은 이 날 법회에는 前 중앙승가대 대학원 장 종석 스님이 초청법사로 나섰다.

일행 스님은 "작은 농촌마을이라 선지식의 법문을 청해들을 기회가 흔치 않아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 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 겨 참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석 스님도 법어를 통해 "대승불 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반야바 라밀다의 실천에 있으며 불교의 가 장 큰 줄기는 신(信)과 행(行)이라 할 수 있다"며 "인연에 의해 모두 이루 어지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 다는 환지분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시골마을에 위치한 익산 정



정각사 33선지식 초청법회 모습

각사는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농사 를 지으며 부족한 사찰 재정을 해결 하고 있으며, 신심이 약한 지역 불 자들을 위해 매월 선지식 초청법회 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위한 기타교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타교 실이 열린다. 불교계에서 운영하 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 으로 기타교실을 열어 한국노래 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에 열리는 기타교실은 노래를 통 해 친근하게 한국어를 익히는 시 간으로 가요와 팝송 강습이 진행 된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주성 대 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생 활에서 추억을 만들어주고 한국 의 노래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 을 가지도록써 고향에 대한 외로 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10월에 개최 될 외국인근로자 축제 한마당에 서 배운 노래를 가지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레협, 포교활성화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레이션 협회(회장 해반) 는 6월 28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 의실에서 포교활성화를 위한 '찾아 가는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는 호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법회 지도자 사, 어린이집 교사 등 관련 지도자 30여명이 동참했다.

강습회에서는 신옥진 불레협 전문 위원의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이윤진 문화포교팀장의 '포교프로 그램 활용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한편 7월 12일에는 제주 약천사 에서 4차 강습회가 개최되며, 7월 5 일에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뽀뽀(Fun Fun)한 템플스테이'라



불레협 지도자 강습회 장면

는 주제로 제5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 불교 최고 CEO 컨퍼런스 과정 개강

50여명 등록, 첫 강의는 수불 스님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 회)가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첫 강사로 '부산 불교 최고 CEO 컨퍼런스 과정'을 개설했다. 부산 불교 최고 CEO 컨퍼런스 과정 은 부산 불교계 재가자들의 화합과 더불어 부산 불교의 발전을 위해 처 음으로 개설된 과정으로 서병수 부 산시장,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 님, 삼광사 주지 무연 스님 등 고령 대덕스님들을 비롯한 내빈들이 강 사로 나선다. 첫 강사로 나선 수불

스님은 "개인의 수행으로 정진하면 좋겠지만 불교를 활성화시켜 사회 에 기여하는 일은 더욱 더 큰 성취감 을 줄 것이다"며 CEO과정을 등록 한 수강생들에게 사회 및 경제에 대 한 기여도를 강조했다. 연이어 수불 스님은 "지역사회나 국가에 불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고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부산 불교 최고 CEO 컨퍼런스 과정에는 이윤회 부산불 교연합신도회 회장을 비롯한 50여



CEO컨퍼런스 과정 개강식서 입제 모습

명이 등록했으며 이들은 2015년 5 월 30일까지 1년 동안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양정 부산불교연합 회관 4층 법당에서 청강하게 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기부나눔 행복바라미 광주서도 활발

6월 29일 광주역 앞 광장서 열려

불교계의 기부확산을 위한 나눔 행사가 열렸다. (사)남마다종은남이 주최하고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가 주관한 2014 행복바라미 지용현)가 주관한 2014 행복바라미 광주역 앞 광장에서 펼쳐졌다.

행사는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연광 스님, 지용현 신도회장, 강은태 전 광주시장을 비

롯해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카 일라스 합창단 등 200여명의 대중 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역 인디밴드의 공연으로 시작 된 행사는 싱어송 라이터 허근, 카 드기부 시연식 등이 개최됐다. 또한 행사장에는 참가자를 위한 페이스 페인팅, 바람개비 만들기, 연꽃차 시음 등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행복바라미 카드단말기 기부 시연

행복바라미는 거리모금의 새로운 형태인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기부 로 해당지역에서 기부된 금액은 전 액 해당지역의 복지기금으로 사용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양만점, 웰빙식단인 사찰음식 곳”

6월 28일 선택사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박정희)는 6월 28일 선택사에서 사찰 음식 전문가 정관스님을 초청 '창립 6주년기념 후원의 날 및 정관 스님 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맛 day'를 개 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 대의 6주년을 돌아보고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의미를 담았으며, 환경 화상영, 한지거울 체험전, 매듭팔

지 만들기, 활동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진정성 있는 사업을 펼쳐오면서 불교계 내 부는 물론 시민사회 영역에서 불교 NGO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발판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삶, 세상과 함께하 는 삶을 향해 더 큰 원력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법일 스님, 연광 스님(광 주불교연합회) 시각 스님(만덕사 주

지),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 정길 광주전남615공동위원회 상임 대표를 비롯해 400여명의 대중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선보인 사찰음식은 감자보리밥, 배추김치, 오이얼가리김치, 뽕잎나물, 머위들 깨집, 죽순조무침, 박나물, 고무마걸 절이 등 23가지 음식이 선보였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을 소개하 는 자리에서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조화로 운 음식을 완성함으로써 모든 존재 의 소중함과 인연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문사-육군 3사관학교 화랑오계 업무 협약 체결

운문사와 육군 3사관학교가 7월 1일 운문사 선영당에서 원광화랑오 계를 잇는 역사적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 자리에는 운문사 한문불전 대학원 원장 명성 스님, 운문사가대 학 학장 흥룡 스님, 운문사가대학 학 교장 진광 스님의 운문승가대학 교 수 소임스님들과 육군3사관학교 학

교장 원홍규 소장, 교수부장 김영훈 준장, 생도대장 황인권 준장, 행정 부장 박동순 대령 이 육군 3사관학 교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세속오 계 정신으로 신라화랑정신문화는 육군3사관학교와 함께 창출하여 갔 으면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운문사-육군3사관학교 업무협약식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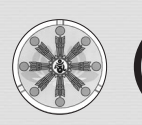


(사)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혜안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 그 큰 공덕을 전 종도와 함께 찬탄합니다. 20여년 동안 한국불교언론의 중심으로.. 역사를 이룬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불교가 더욱 청정한 정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에서 범 종단지의 역할을 다해오신 현대불교 신문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각 종파를 두루 살피며 상호 발전을 위해 애 써오신 노고는 분명 한국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다해 오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2000호, 3000호.. 계속 번창하시고 불교 일간지의 숙원 꼭 이루시길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